

Fact Check

12조 황용환 오근택 이상욱 김선규

Pope Francis Shocks World, Endorses Donald Trump for President, Releases Statement

TOPICS: Pope Francis Endorses Donald Trump



Fake News Is A Real Problem

Facebook engagement of the top five fake election stories*

Headline Publisher

"Pope Francis Shocks World, Endorses Donald Trump for President, Releases Statement"

Engagements

960,000

"Wikileaks CONFIRMS Hillary Sold Weapons to ISIS...Then Drops Another BOMBSHELL! Breaking News"

The Political Insider

789,000

"IT'S OVER: Hillary's ISIS Email Just Leaked & It's Worse Than Anyone Could Have Imagined"

Ending the Fed

754,000

"Just Read The Law: Hillary Is Disqualified From Holding Any Federal Office"

Ending the Fed

701,000

"FBI Agent Suspected in Hillary Email Leaks Found Dead in Apartment Murder-Suicide"

Denver Guardian

567,000

Total Facebook engagement for top 20 election stories (August-election day)

Fake news

8.7 m

Mainstream news

7.3 m



22 February 2017 14:46

Vitaly Churkin is 5th Suspicious Death of Russian Diplomat in 3 mon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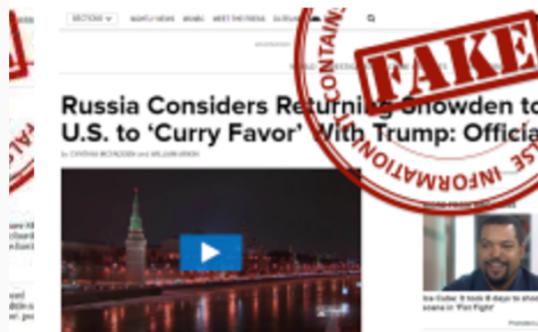
20 February 2017 17:56

Russia Is Hacking France's Presidential Front-Runner



20 February 2017 17:54

Russia Deploys Missile, Violating Treaty



20 February 2017 17:33

Russia Considers Returning Snowden to U.S.



Ask FactCheck

ACT
ZER PRIZE

PEOPLE PROMISES PANTS ON FIRE ABOUT US JOIN

Search

factcheck

최근팩트 | 핫이슈 | 카테고리

문재인 문재인의 과거 이력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자세히 읽기 > 대체로 거짓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 수 있다”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자세히 읽기 > 사실반 거짓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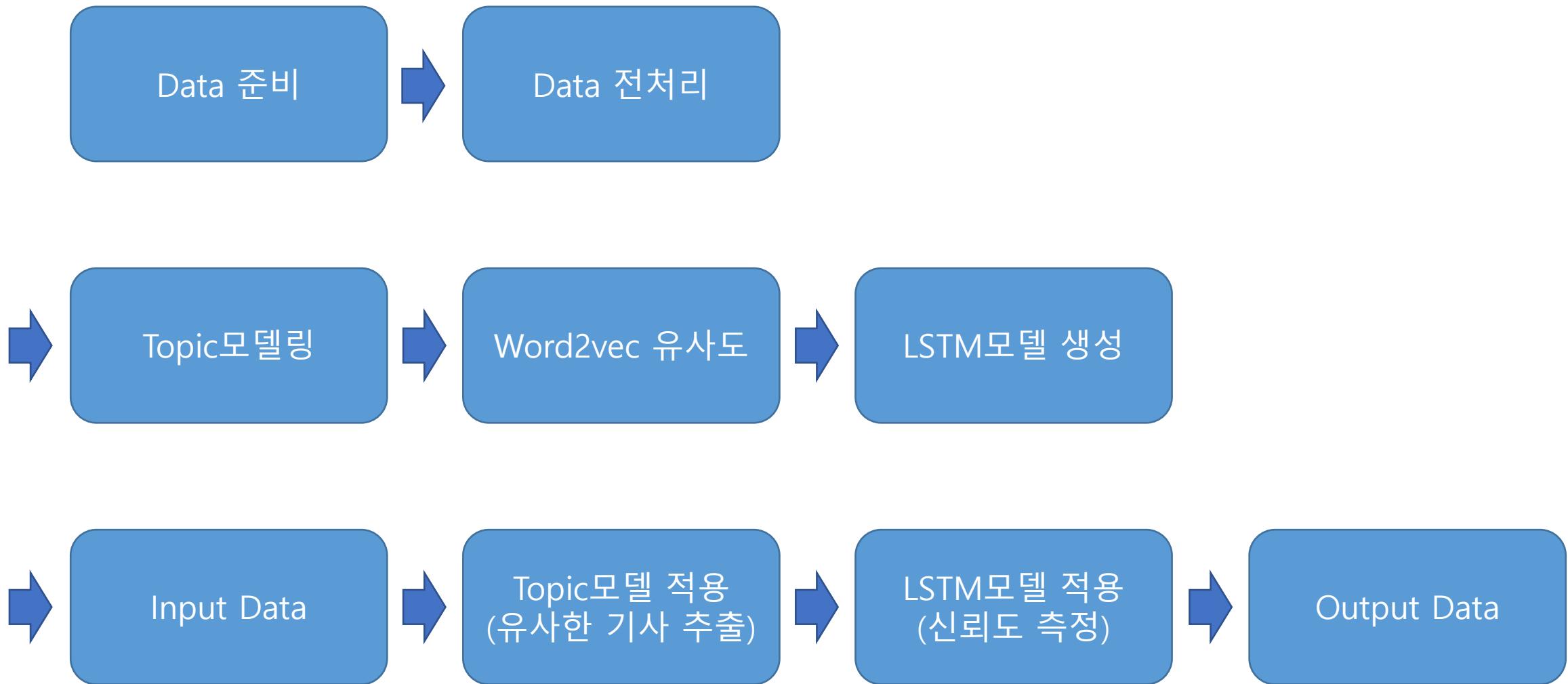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
자세히 읽기 > 대체로 거짓

참여 언론사

SBS KBS
매일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MBN
JTBC YTN
서울신문 TV 조선
중앙일보 세계일보

FAKE NEWS





JTBC는 신뢰도 조사에서 30.3%로 1위에 올랐다. 이어 한겨례(12.1%), KBS(6.0%), 중앙일보(4.2%), 한국일보(3.4%), 조선일보(3.3%), 경향신문(2.8%), YTN(2.7%), MBC(1.3%), 연합뉴스(1.2%) 차례였다. ‘기타’ 14.8%, ‘잘 모름·무응답’은 17.9%였다.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회 연속 신뢰도 1위를 차지했던 한겨례는 올해 2위로 내려왔다.



뉴스홈 다시보기 오픈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정치 홈

한겨례



정치 주요뉴스

정의용·서훈, 미국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장과 서 원장은 이날
[연합 > 정치] 2018-03-



최신팩트 핫이슈

홍준표 "소득분배 지니계수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빴다"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19대 대선

한국일보 YTN 조선일보 KBS 중앙일보 댓글 0 공유

유승민의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우리 주적이라고 나오는데”라는 발언, 사실은?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19대 대선

SNUFact 절반의 사실 댓글 0 공유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댓글 0 공유

국회·정당

배현진 MBC 전 앵커 9일 한국당 입당 … “송파을 공천 유력”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배현진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 자유한국당에서 당직을 ...

2018-03-08 11:43

기사 1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조속한 만남' 희망을 전달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만나겠다'고 전격 호응함에 따라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탐색대화 조차도 확실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관측을 벗어난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의 사태 진전인 셈이다.

이에 따라 불과 얼마 전까지 심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던 한반도정세는 이제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지형과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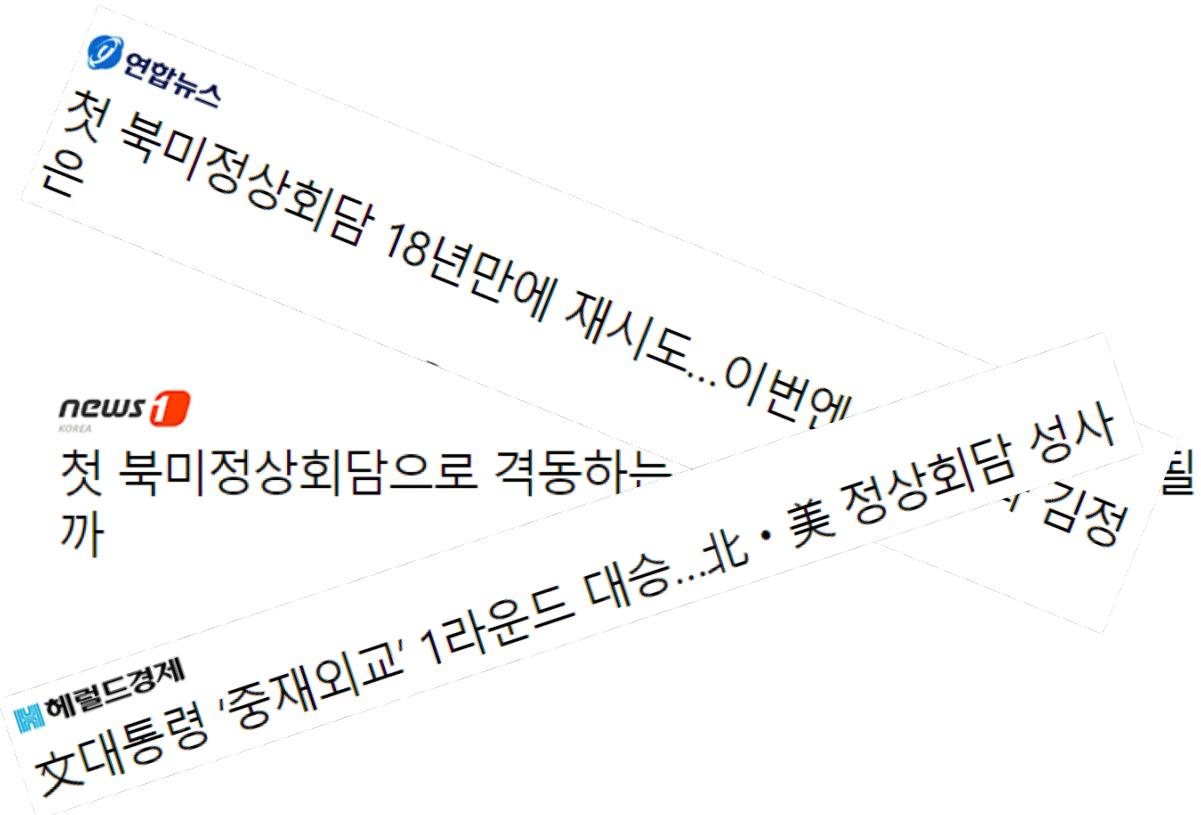
절대적 이던 국가를 사이의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이다. 예측하기 쉽지 않고 파격적인 북미 양측 두 지도자의 파격적인 결정에 의해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차수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상호 방문을 통해 목전까
미정상회담은 18년 만에 다시 가시권에 들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5월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한반도 정세는 지난 2000년의 상황과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비슷한 Topic 기사들



유사도 계산

기사 1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조속한 만남' 희망을 전달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만나겠다'고 전격 호응함에 따라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탐색대화 조차도 확실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관측을 벗어난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의 사태 진전인 셈이다.

이에 따라 불과 얼마 전까지 심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던 한반도정세는 이제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지형과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절대적이던 국가들 사이의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이다. 예측하기 쉽지 않고 파격적인 북미 양측 두 지도자의 파격적인 결정에 의해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